

제3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16. 1. 26(화) 10:00~
-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1동) 5층 회의실
- ◆ 참 석 : 김성복, 김연규, 노승범, 문선욱, 박민정, 박상희, 변태순
박춘호, 이성훈, 이용철, 이혜경, 임성훈, 홍현숙
- ◆ 안 건 : 미술작품 2건 3작품(조각 3) [신규 2작품, 재심 1작품]
- ◆ 결 과 : 부결 3작품
- ◆ 회의록 확인 : (서명), (서명)

□ 위원 발언 내용

<위원장>

- 금일 심의위원회 총 13명 중 13명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3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회의 내용은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녹취되며 회의록으로 기록되어 시민에게 공개 예정입니다. 본 회의 종료 후 참석 위원 중 2명에게 회의록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에 따라 서울시의 주관부서에서 확인서명 요청이 있을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 심의 안내에 따라 사전토론을 먼저 한 다음 개별 채점을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을 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 작품1-1과 1-2는 작가가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롯데마트의 작품 1-1과 1-2 의견 말씀해 주시죠. 이 작품의 예술성이나 안전성, 재

료 등 작품의 대한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작품입니다. 작품은 주변의 대비되는 환경에 따라 크기 등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의 키를 175, 여자의 키를 165로 연상을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롯데마트의 기능성을 반영한 작품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위에 있는 사람과 밑에 있는 사람의 크기를 키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아 조형적 관점에서요?
- 예. 위에 건 2m 정도, 밑에 건 1m 정도로 키워도 이 작품의 비례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형적으로 달팽이 형태의 크기에 비해서 사람의 크기가 작다는 말씀이시죠?
- 네, 그렇습니다.
- 그리고 또 다른 부분 도색이라던가 색깔, 형태, 안정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빌딩이나 새로 짓는 건물의 특징을 감안하는 조형물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그게 조형적으로 심사숙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거 같습니다. 이건 조형성의 문제가 아니라 콘셉트 자체가 조형물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정말 없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예
- 제가 보기에는 평가할 큰 의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작품을 보면서 너무 힘이 들어요. 가끔 참석해서 느끼는 바이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작품들에는 제거가 필요하지 않나. 이번 심의 들어온 롯데마트 건과 재심의가 들어온 작품을 비교해 보면 재심의 작품의 작가 창작비

가 1800만 원이 되어있고 금액은 2억3000만 원인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롯데는 조형물 1억 3000만 원정도인데 작가 창작비는 2700만 원으로 이런 게 무슨 근거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서울시에서 어떤 기준이 마련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런 기준도 없는 거 같고 어쨌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런 직접적인 조형을 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 두 번째는 창작비가 왜 차이가 있느냐, 이것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 그렇죠. 2억 3천에는 창작비가 1800만 원이 되어있고, 1억 3천에는 작가 창작비가 2700만 원으로 하고 기준이 없는 거 같습니다.
- 조금 거꾸로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보다는 조각가의 입장으로써 볼 때 창작비라는 자체가 어떤 근거라던가 공산품처럼 기본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닌 고유의 영역이라서 요구하고 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료비로 말하자면 유명 작가의 그림은 호당 몇 천, 몇 억도 되는데 좋은 재료, 더 섬세하게 그리는 작가가 10만원, 20만원 받듯이 차이는 있겠지만..
- 아니요. 제도적으로 한 장가격의 8%가 있거든요. 한 장가격은 20%받고, 작가가 창작비를 스스로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감안되어야 할 듯 합니다.
- 작가 창작비는 스스로 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참조로 하는데 다만 여기서 볼 땐 이 작가의 작품 제작비가 밑에 부결 심의된 작품에 비해서 차이가 있겠죠. 거기서 나머지 작품에 맞추다 보니까 작품의 창작비에 끼워 맞출 수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재료비나 작품 창작비 상환 관계가 저도 참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2700의 작가 창작비를 제출한 부분은 LH 공사에서 20% 내로 쓰

는 기준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 비교를 해보면 1번 작품은 대행수수료가 20%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번 작품은 대행수수료가 없습니다.
- 대행수수료가 있는 것은 갤러리나 대행업체를 통해서 심의 대행 및 계약 등을 했을 때에 수수료가 20% 이내로 포함이 되어 있고, 자료를 보니까 재심의 된 이것은 대행업체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작가가 직접 계약한 건입니다.
- 대행한 대행업체가 명시되어 있나요?
- 계약서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건축주와 대행사, 대행사와 작가 간의 계약내용이 제출됩니다.
- 조례나 규칙 같은 것에 대행에 관련된 조항이 있나요?
-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대행수수료는 20%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 예. 20% 이내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 서울시에 20%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왜죠?
- 인정하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몇 년 전에 대행수수료를 인정하는 것으로 했고, 일단 서류의 일관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용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얘기한 재료비가 얼마인지 창작비가 얼마인지 이러한 것보다 현재 굉장히 서울시에 문제점이 되는 게 조각일 경우에는 재료비나 제작비 등이 구분이 가능한데 회화일 경우에는 재료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화도 조각같이 재료비를 적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조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감정 협회 등에서 감정 평가한 가격을 첨부한다던지 하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감정가격을 첨부한다고 하면 작가가 아닌 경우에는 댈 수 없겠죠. 그런 식으로 아마추어를 막는 방법

도 있고,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창작비가 누구는 몇 퍼센트인데 누구는 몇 퍼센트다 이것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틀이 20% 이내에 할 수 있다, 매니저가 가져가는 퍼센트도 20% 이내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법적인 것을 방금 이야기했지만 회화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저는 조각하는 입장이지만 그림 하는 사람들 재료비를 만들어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에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임성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의 작품이 스테인리스로 많이 되고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을 작품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계열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최근의 추세다 보니까 스테인리스가 도시미관에 합당한 재료인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차원에서 아주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오늘이 작품 가지고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 지난 번 저희가 12월 중순에 위원님 오시고 자문 회의를 했었고, 올해 중에 말씀하신 회화 작품, 조각 작품에 재료비 선정에 책정 문제가 되고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운영해오면서 문제 된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 계획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이용철 선생님께서 지적해주신 인체의 비례와 전체 작품과의 조화, 크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문제와 임성훈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체적인 조형성과 색깔, 스테인리스라는 유행을 타는 듯한 이러한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작품에 대한 재검토의 문제, 2가지로 압축해서 한다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네요.
- 1-1과 1-2 두 작품 작가가 확실히 다른 작가가 맞나요?

- 예 다른 작가입니다. 그런데 유사하게 보이죠.
- 앞에도 핸드드로잉 페인팅을 했다고 하고 두 번째도 핸드드로잉 페인팅 이에요. 핸드드로잉 페인팅은 사실 일반적으로 쓰는 페인팅이 아닌데 작품이 너무 유사하고 조금 의심이 되네요.
- 대행사는 동일하고 작가가 다르다는 거죠?
- 예 대행사는 같습니다.
- 제 의견은 첫 번째 작품, 두 번째 작품 모두 너무 식상합니다. 물론 쇼핑센터 전체적인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달팽이 같은 조형물은 어디 가도 예를 들어 올림픽 기념관 같은 곳에 가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요소이고, 두 번째 작품도 너무 진부화된 생각 그런 면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저는 두 번째 작품을 딱 보았을 때 놀이공원의 풍선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스테인리스에 일반 도장을 하는 것이 유지 보수하기가 괜찮을까요? 시간이 되면 탈색이 되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 그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도색하는 방법이라던가 보존처리, 얼마만큼 유지가 되느냐에 대한 설명이 되어있네요. 31p를 보시면 도색에 대한 보존성이 나름대로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오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 한번 설치를 하면 건물주가 교체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설치된 작품들이?
- 예 그렇죠.
- 이 작품이 마트에 들어선다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번 보면 밝고 발랄하다고 느껴질 텐데 매일 본다고 생각하면 식상스럽고 산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이들이나 주부들이 많이 오는 마트 특성상 살리고자 했는데 많은 분들이 유치하다고 말씀하시네요. 덕성여대 김연규 선생님께서

는 회화를 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요즘 뭐 이런 트렌드적인 표현들이 많이 유행됐잖아요? 하지만 모든 작품들이 트렌드적인 경향보다는 도시공간 조형물로써 창의적인 작품성과 예술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공미술이 예술성, 창작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건축하는 입장에서 적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치가 적정한지, 스케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근데 지금 보면 예술작품을 선정하는 데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과의 상태에 따라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가 전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나오는 모든 작업들을 보면 철저하게 작품 중심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면을 보면 앞쪽으로 문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위치나 자리, 사이즈가 적정한지, 조형물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공공미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품 중심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하고 공간적으로 어떻게 적정한 위치인지 그리고 그 위치에서 보행이나 접근에 방해되지 않는 건지, 두 작품을 보면 위치도 적정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표현 자체도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심의자료를 준비할 때 보완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저희도 이 작품을 보면서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한쪽에서는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는 것 같아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4m 정도 지금 정문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전체가 보이지만 가려진 부분에 건물이 보이는데 그쪽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 작품이 문 앞에다가 놓으면 출입에 방해되지 않을까요?
- 저희도 우려는 했는데 지금 위치적으로는 정문하고, 벽면에 4m씩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건물이 건축되고 난 후에 작품위치가 결정되는데 사실 이런 작품

이 들어가면 보통 공개공지라든지 열린 공간에 들어가야 하는데 코너에, 그것도 출입구 앞에 있는 것이 적정한 건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 우리나라의 건축물의 면적이 여유롭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품과의 환경과 조화를 찾아서 좋은 위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저도 참 아쉬워요
-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독립적으로 놓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쏠려서 놓든지 벽면에다가 놓는다든지 등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하는데 이런 작품을 이런 공간에 놓으려다 보니까 환경 주변에서부터 무언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꾸 억지로 놓으려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의견에 다른 의견을 가지신분 계신가요? 명지대의 이성훈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저는 노 교수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공간에 비해서 상당히 크거나 비례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에 잘 만나와있어서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 대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작품의 조형성에도 문제가 있고, 환경과 주변 조건과의 문제, 독창성보다는 유행을 타는 듯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조형물로써 롯데마트의 주어진 조건에는 어울리지 않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비례만 바꾸면 괜찮겠다고도 하시고, 이점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채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과 저희가 80명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쪽 해왔던 관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례에 맞춰서 트렌드라는 표현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트렌드에 맞춰하면 서울시에서 통과가 되더라 하면서 이렇게 스테인리스에 채색이 되어 많이 왔는데 앞으로 스

테인리스에 채색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 예술성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 잣대로 이번에 스테인리스에 채색 이걸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가 평생 해오던 있을 수 있고 미술 심의가 제가 알기로는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취지도 있지만 작가들의 생존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는데 작품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떨어트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말 작가로써 활동 경력이 있는지도 참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인천인 것 같은데 제가 심의를 들어가 보니까 국제도시가 되다 보니 백화점에 대한민국 내놓으라 하는 작가분들 작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보는 것과 일반적으로 작품을 보면 군더더기같이 조각을 해요 저 자체에서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데 무언가 닳은 것 같고 개성이 없고 심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작가들의 작품이 거리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공공미술이라고 해서 매스도 모르는 자들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것이 이걸 관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롯데나 현대 같은 건축주들이 생각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수로 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이다 이런 것보다는 염원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앞서서도 다른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두 번째 작가는 누군지 알겠어요. 근데 이 분은 조형물을 많이 해온 분임에도 불구하고 도면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33p가 근경인데 34p가 원경이에요. 원경과 근경이 다르게 거의 없습니다. 조각가로서 도면을 볼 때 기분이 좀 언짢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면의 규격화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저희는 작품도 평가하지만 건축물과의 조화에서 작품에서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느낄 때 장소 이동을 제안할 수 있는 입장인데 여기서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떤 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도면상으로도 저희가 주변 파악이 안돼서 요청을 해보았는데 이번 자료는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들어오는 자료들의 대해서는 철저하게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평면도에서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입면에서의 틀도 중요합니다. 투시도상에서는 지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조각 작품하고 어떻게 보일지 입면에서도 정확한 도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실제 설치되었을 때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 심의 도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제가 종합해본 것인데요 지금 선생님들 의견에 트렌드처럼 된 것이 식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과 전체 점수에서 예술성은 30%밖에 안 되고 작가의 경제적인 것을 공공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문화적 지원 사업과 충돌하는 딜레마가 사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트렌드가 유행처럼 자체가 심의에서 무난하게 통과가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유행처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독창적이고 심도가 있는 작품을 선정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위원 분들이 중요하고, 영향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참고를 하셔서 이 작품이 작가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 통과시키고 싶다고 하시면 어떤 재심을 통해서 다른 작품을 제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채점을 하도록 해야겠네요.
- 심의 들어와서 보면 토론할 때는 비판적인, 예술성이라던가 작품

성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점수를 보면 후한 점수를 주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공공미술이라는 것을 중점으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반영구적으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냉정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모작 같은 경우 한번 걸려져서 오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오기 때문에 저렇게 재심 3심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창작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어하고 재능도 있는 작가를 키우기 위해서는 공모작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심의에 들어가면 웬만하면 통과가 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심의원에 들어가면 시민들이 점수가 왜 이렇게 후하냐라는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상에서도 굉장히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자료를 저는 서울시 심의에 합당하게 자료를 제대로 보완해가지고 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경과 원경이라는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를 보면 서울시 심의를 굉장히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원경, 근경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것은 어린이가 봐도 거의 비슷한 거지 원경, 근경이 아닙니다. 너무 성의 없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점수도 매기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보완해가지고 와서 재심을 요구합니다.

- 뒤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니 이것은 작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자료를 받은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 서울시의 문제인가요?
- 그렇죠. 심의하는 3개 자료가 다 근경과 원경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좀 더 신중하게 성의껏 서류를 보완한 상태에서 했으면 지금 이 상황보다는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작가가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 최근엔 작가가 다 만듭니다

○○○ 그럼 작가 잘못이죠.

○○○ 말씀을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다른 시 도에 비해서 심의를 공정히 하고 잘 하는 것보다는 시스템 변화에 적응을 잘하고 앞장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심의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뱅크제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이번에 부결된 작품이 다음 심의에 들어와서 통과되고 하는 식으로 되어서 이런 것도 책임제로는 할 수 없지만 심의를 정확 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저희가 논의했던 바를 그쪽에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 넘어 가거든요. 이것이 뱅크제의 한계입니다.

○○○ 그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을 때 기본적인 매뉴얼을 새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매뉴얼 상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앞으로 이런 매뉴얼 들을 만들 것인데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많은 의 원님들이 이런 부족한 점들이 있으니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재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앞으로 잘 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바뀌는 것 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회 때 일관성을 가지고 같이 가야지 다음 회 때 오시는 심의위원님들은 이런 내용을 들으신 적이 없 으니까 별로 생각 않고 넘어가셨으면 어떨 땐 이렇게 자료를 내 라 하고 어떨 땐 어떻게 이랬을 때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잡아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부결되었을 때 그 이유를 기록해서 심의위원회에 첨부하는 것

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여 왜 부결이 되었고 제대로 보완이 되어 제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확인하고 작품이 좀 더 변화가 되고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저번에도 저런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논의 한 것들을 잘 정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나 의문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보통 순환보직을 하는 상황에서 잘 될까 회의적입니다. 담당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을 할 뿐이지 부족한 점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지켜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심사숙고해서 신경을 쓴다면 좋겠지만 아니라면 무의미한 일 같습니다. 이뱅크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불신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인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전문성은 점점 떨어지게 되죠. 말이 달라지고 성격이나 전공분야에 따라서도 관점이 달라지고 작년에 서너 번 참가했지만 매번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형식적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조형 문화도 작가들에 대한 지원적인 측면도 있고, 공공미술이 조금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누군가는 작가가 되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조금 더 능력 있는 작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롯데마트 앞에도 롯데마트를 위한 작품이 아니라 색다른 작품이 설치된다면 더 좋을 듯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매뉴얼 같은 것 들을 만들어서 미리 배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가령 공공조형물을 조성할 때 어떤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지 기계적으로 하지 않도록 해서 능력 있는 공공미술 작가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근본 조형물이 작가 지원 취지도 있지만 공적 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롯데마트에 왜 이러한 작품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공감입니다. 롯데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행인, 시민들의 입장으로 볼 때 이 작품이 꼭 여

기에 있어야 하나? 라고 생각이 들게 하고 시각적인 공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공공조형물이니 만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셔서 지금까지 말씀 나누신 것을 종합적으로 점수로 할 수밖에 없는데 재심의를 강력하게 요구하신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시죠.

- 오늘부터도 열심히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관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갑자기 바뀌어 버리면 이 분들에게 억울할 것 같고, 사전에 공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점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충분한 의견을 나누셨다고 생각하시면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 작가가 3번째 심의 받으시는 건가요?
- 예
- 그러면 몇 번까지 재심을 할 수 있나요?
-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 건물주가 생각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이렇게 재심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 올바르지 않죠. 왜냐하면 자꾸 내다보면 뱅크제로 한 번 걸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안 된 작품이 있나요?
- 아니요. 5심까지 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 그러면 심의를 왜 하나요?
- 그런 의견이 나왔지만 횟수의 제한을 두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지만 제도 개선에 대해 여러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 제가 작가를 많이 알고 있고,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는 괜찮은 작가인데 건물주가 마음에 안 들면 작품을 못하고 마음에 드는 작가만 선정한다면 능력 있는 작가, 조형성 있는 작가

들의 기회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 이런 것은 뱅크제의 궁극적인 것이고 제도적인 큰 틀에서 한번 변화를 가져야 하는데 서울시가 의지가 없는 것이고 여기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이나 물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관심이 없는 것이죠.
- 보통 소형건축물의 경우 그냥 작품설치해서 준공통과를 목표로 대충 작품을 설치하기도 하나 대형건설사나 이름 있는 회사의 경우 좋은 작품을 설치해서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을 보면 건물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타 시도에서 8심까지 간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 들은 굉장히 심의 위원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조각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 부결된 작품을 제한없이 무제한으로 반복 심의신청을 받아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세금 낭비인 것 같습니다.
- 말씀하신 내용들은 정리가 돼서 매뉴얼을 만들고 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것이 구호성으로 끝나기 쉽더라고요 제도가 뒷받침해주지를 않으니깐 반복되는 경우도 많고요.
- 그래서 제가 들어 왔죠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품자체를 냉정하게 보자는 거죠
- 조례법이 바뀌었잖아요 문화기금으로 70%를 내야 되는, 작가들에게서 소리가 많이 들려요 이번 심의가 안 되면 기금으로 가야 한다는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2번의 경우가 그런 것 같네요. 그 작품이 건물에 세워지느냐, 그 금액 다른 서울시 문화 사업에 사용되는가에 대해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 실제로 문화기금으로 사용된 적이 있나요?
- 7건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50억 정도는 조성이 됐습니다. 이렇

게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아직 문체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 만약에 그럴 경우에 건축주 반응은 어떤가요?
- 준공 시안이 늦어지면 본인도 손해가 나니까 깨끗하게 기금으로 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작품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작품으로 보는게 더 좋다고 느끼겠죠. 그런데 재심의가 되면서 작가가 바뀐 적이 있나요?
- 예. 있었습니다.
-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개인사업자 같네요. 이런 경우에는 작가가 안 바뀌고 여러 번이고 재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그래서 심의에서 이 작품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3번째 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다고 전달이 된다고 하시는데 제도상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이 작품 역시 3번째 왔지만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은 것 같네요. 일단 이 작품 직접 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조형성이나 안전성 등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심도 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품의 크기가 크네요. 이것도 5m가 넘습니다.
- 이 작품도 설치 위치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배경하고 작품과의 상관성 부분은 표시도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전성 면에서도 보강이 됐는지 모르겠고, 배색 조화 원리가 부조화되는 것 같습니다.
- 주변 환경에 비해서 너무 요란한 것 같습니다. 환경하고 조화가 안 맞고, 전 개인적으로 이런 것 보다는 의도가 명확한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 김성복 선생님이 보셨을 때 안정성이라던가 관리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나요?

- 저는 일관성 있게 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의한 내용으로 보면 1번째도 좋고 2번째도 좋은데 3번째가 안 좋잖아요. 계속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뱅크제의 한계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작가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관점마다 다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의결됐을 때 이 자료가 있나요? 앞으로 재심의가 들어오면 현재 자료와 그전 심의 자료를 비교를 해보며 함께 보고했으면 좋겠어요. 그 뒤 자료를 보면 설치금액 사용계획서가 있는데 작품이 달라졌을 경우 사용계획서도 달라졌을 거 같은데 그런 것도 비교를 해 봐야 합니다. 동일한 금액 내에서 바뀔 수도 있어서 이런 것도 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완을 했다고 해서 서류상 보완인지, 실질적 보완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 도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보관상의 문제가 있을 텐데 이것을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름과 cd로 보관해서 원하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냥 모르겠습니다. 오늘 3작품을 보면서 불만이 생겨서 어쨌든 오히려 작품 1, 2가 그나마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형적인 공간 문제, 매스 다루는 솜씨, 조각가로서 구조의 이해가 정말 현격히 떨어지는 작가의 작품 같아요. 조형적인 통일도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조형적 구조를 모르는 사람 같네요. 조형물로 보기엔 힘든 것 같습니다.
- 점수로 하시면 되지 않나요?
- 1차, 2차가 부결되어 부결된 사유에 대해 보완한 것이 현 작품인데 심의 위원들의 일관성에 관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제도도 문제지만 심의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차후에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고 예산도 좀 받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 마지막으로 조형물이 설치되는 곳의 건물 용도가 상업과 판매시설이거든요. 술 취한 사람이나 어린애들이 밟고 치거나 마음만 먹으면 타고 부러지는 염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성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점수를 매길 때 통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권고 사항, 참고사항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각자 채점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 발표>

<위원장>

- 오늘 심의 결과 3개 작품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결과에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써 2016년 제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